

2018년 11월 22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장 후반 매물 출회되며 상승 축소 알파벳 +1.26%, 아마존 +1.42%, 페이스북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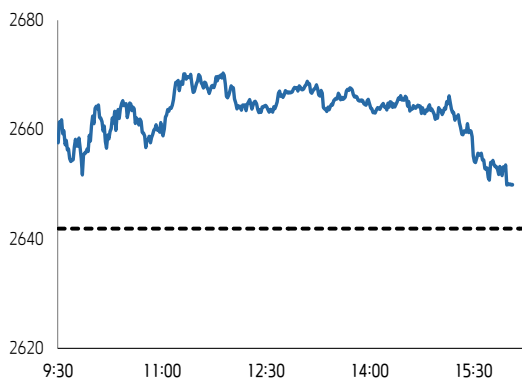
###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대형 기술주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 더불어 국제유가가 장 중 4% 넘게 급등 한 점도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 또한 일부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우호적인 영향. 다만, 오후 들어 국제유가가 상승폭이 축소되고,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영국 브렉시트 관련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잡으며 상승 축소. 특히 애플(-0.05%)이 하락 전환한 점이 부담(다우 -0.00%, 나스닥 +0.92%, S&P500 +0.30%, 러셀 2000 +1.31%)

미 증시 상승은 ①국제유가 급등 ② 기술주 강세가 주요 요인이었음. 전일 국제유가는 장중 7% 넘게 급락 했으나,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 하락은 감세 효과를 주며, 사우디에 고맙지만 더 내려야 한다” 라고 주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중 한때 4% 넘게 급등. 민주당이 트럼프의 전일 사우디 관련 발언을 취소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점. EIA 원유재고 보고서에서 가솔린 재고가 130 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하자 상승. 더불어 인도의 10 월 원유 수입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하며 7 년내 최고치를 경신 한 점도 상승 요인. 다만, EIA 보고서를 통해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돼 매물 출회되며 상승폭 축소

한편,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던 대형 기술주가 상승 한 점도 미 증시 강세 요인. 기술주는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 보고서(19 일)를 통해 신기술 수출 규제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낙폭이 더욱 거세짐. 이 하락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을 감안 관련 이슈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반등에 성공. 전일 커들로 백악관 국가 경제 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분쟁 협상 타결을 희망한다” 라고 주장. 더불어 일부 언론 보도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 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가 배척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도 긍정적. 이는 미국의 협상 타결 노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기술주 투자심리 개선. 다만, 애플(-0.05%)이 아이폰 판매 감소 우려로 하락 전환. 이를 감안 여전히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는 위축되어 있어 반등이 지속되지는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주목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076.55	-0.29	홍콩恒生		25,971.47	+0.51
KOSDAQ		695.72	+0.71	영국		7,050.23	+1.47
DOW		24,464.69	-0.00	독일		11,244.17	+1.61
NASDAQ		6,972.25	+0.92	프랑스		4,975.50	+1.03
S&P 500		2,649.93	+0.30	스페인		8,960.60	+1.06
상하이종합		2,651.51	+0.21	그리스		599.95	+1.16
일본		21,507.54	-0.35	이탈리아		18,731.55	+1.4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대형 기술주, 에너지 업종 강세

팻코(+14.91%)가 주요 사업부문인 신발 및 여성복의 판매 증가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다. 갭(+4.66%)은 동일 점포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으나, 의류 매출이 예상보다 양호하고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자 상승했다. 디어(+2.43%)는 농장 및 건설시장의 강세에 힘입어 매출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한 이후 상승했다. 오토데스크(+9.74%)도 실적 개선 발표 이후 급등했다. 코노코필립스(+2.33%), EOG리소스(+3.56%) 등 에너지 업체는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아마존(+1.42%)은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아마존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주유소, 레스토랑 등에 아마존 페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페이스북(+1.75%)은 저커버가 이사회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상승했다. 알파벳(+1.26%)은 덴마크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한 이후 상승했다. 반면, J&J(-3.05%)는 Zytiga 관련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여파로 급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40%	대형 가치주 ETF	+0.25%
에너지섹터 ETF	+1.73%	중형 가치주 ETF	+0.64%
소매업체 ETF	+1.73%	소형 가치주 ETF	+1.02%
금융섹터 ETF	+0.08%	배당주 ETF	-0.21%
기술섹터 ETF	+0.73%	변동성 ETF	-2.34%
소셜 미디어업체 ETF	+2.93%	대형 성장주 ETF	+0.65%
인터넷업체 ETF	+1.51%	중형 성장주 ETF	+1.30%
리츠업체 ETF	-0.06%	소형 성장주 ETF	+1.58%
주택건설업체 ETF	+1.35%	신흥국 고배당 ETF	+1.63%
바이오섹터 ETF	+0.70%	신흥국 저변동성 ETF	+1.12%
헬스케어 ETF	-0.57%	하이일드 ETF	+0.44%
곡물 ETF	-0.06%	물가연동채 ETF	-0.05%
반도체 ETF	+0.44%	Long/short ETF	-0.4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5.82	+1.58%	+0.68%	-1.02%
소재	336.80	+0.84%	-0.07%	+6.66%
산업재	585.54	+0.65%	-1.84%	+0.54%
경기소비재	805.62	+1.00%	-4.39%	-2.16%
필수소비재	558.54	-0.83%	-2.81%	-0.79%
헬스케어	1,034.52	-0.51%	-0.87%	+2.41%
금융	434.47	+0.06%	-0.55%	+3.88%
IT	1,131.03	+0.62%	-3.04%	-4.07%
커뮤니케이션	143.75	+1.00%	-2.63%	-1.72%
유틸리티	273.00	-1.48%	-0.95%	-2.49%
부동산	203.99	-0.13%	-0.68%	+3.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매물 출회 배제 못함

MSCI 한국 지수는 1.32% MSCI 신흥 지수도 1.82%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477 계약)에 힘입어 1.15pt 상승한 269.7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7.3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스닥은 국제유가 상승 및 대형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일부 언론에서 미-중 정상회담 및 만찬에 대 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무역정책 국장이 배제 되었다는 보도도 한국 증시에 우호적이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협상에 대한 미국의 타결 의지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여전히 공급증가 및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아 장 후반 상승폭을 축소할 점, 애플이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는 등 여전히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부담이다. EU 집행위는 이탈리아 예산안이 EU 규정을 위반했다며 조만간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대화 할 준비는 되어 있으나, 현재의 예산안은 고수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 후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주택 지표 개선

미국 10 월 기존주택 판매건수는 전월 보다 1.4% 증가한 522 만 건을 기록했다. 특히 7 개월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증가 했다. 다만, 여전히 모기지금리 상승과 저가 주택 공급 제한 등으로 지속된 성장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월 내구재수주는 전월 대비 4.4% 감소 했다. 이는 예상치(mom -2.2%)를 하회했다. 대체로 자동차 및 부품 주문은 소폭 증가했으나, 항공기 주문이 감소한 여파다.

11 월 소비심리지수는 전월(98.3) 보다 둔화된 97.5 로 발표되었다. 소비자 기대지수(88.7→88.1)은 물론 현재 여건지수(113.1→112.3)도 둔화되었다.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2.1 만건) 보다 증가한 22.4 만건으로 발표되었다. 4 주 평균 신청건수도 지난주(216,500 건) 보다 증가한 218,500 건으로 발표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반등 성공

국제유가는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 했다. 특히 EIA 의 주간 원유재고 보고서에서 원유 재고는 예상보다 증가한 485 만 배럴로 발표되었으나, 가솔린 재고가 130 만 배럴 감소하는 등 수요 증가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했다. EIA 가 정유업체들의 설비 가동률이 지난주(90.1%) 보다 높아진 92.7%로 발표하자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다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국제유가 하락 의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을 감안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이 축소 되었다.

달러화는 기존주택 판매 개선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약세로 전환 했다. 특히 신흥국 환율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유로화는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 여파로 달러 대비 강세폭이 축소 되었다. 파운드화는 메이 총리와 용커 EU 의장이 미래 관계에 대한 정치 선언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총리가 지브롤타 문제를 영국이 직접 해결해야 된다고 발표하자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보험권에서 등락을 보였다.

국제금리는 주택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했다. 그러나 장 후반 주가 지수가 상승폭을 축소하자 금리 또한 상승폭을 축소했다. 한편, 10 년물 물가연동 채권 입찰에서 응찰률이 2.59 배로 2018 년 평균(2.49 배)는 물론 2017 년 평균(2.33 배) 보다도 높았다.

금은 상품시장이 강세를 보이자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4.63	+2.25	-3.21	Dollar Index	96.725	-0.11	-0.08
브렌트유	63.48	+1.52	-3.99	EUR/USD	1.1384	+0.12	+0.65
금	1,228.00	+0.56	+1.48	USD/JPY	113.1	+0.29	-0.47
은	14,502	+1.63	+3.00	GBP/USD	1.2778	-0.08	-1.65
알루미늄	1,953.50	+0.70	+0.54	USD/CHF	0.9947	-0.07	-1.21
전기동	6,235.00	+0.82	+2.38	AUD/USD	0.7262	+0.67	+0.41
아연	2,568.00	+0.67	+2.64	USD/CAD	1.3246	-0.45	+0.03
옥수수	372.75	+0.13	-1.39	USD/BRL	3.7975	+1.08	-0.32
밀	506.75	-0.34	-1.03	USD/CNH	6.9247	-0.29	-0.28
대두	883.00	+0.23	-0.06	USD/KRW	1131.60	+0.52	-0.24
커피	114.10	-0.70	-1.81	USD/KRW NDF 1M	1127.30	-0.19	-0.48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063	-0.01	-6.23	스페인	1.632	-1.30	+1.50
한국	2.210	+0.50	+1.30	포르투갈	1.958	-2.20	-0.20
일본	0.095	-0.70	-1.60	그리스	4.633	-3.20	+15.30
독일	0.376	+2.60	-2.20	이탈리아	3.468	-14.60	-1.90